

6시간 혈투끝 조코비치 웃었다



호주오픈테니스…최장시간 대결 나달 꺾고 2연속 정상

에서 끝난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 서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을 5시간53분의 대접전 끝에 3-2(5-7, 6-4, 6-2, 6-7, 7-5)로 꺾었다.

5시간53분은 역대 메이저대회 단식 결승에서 나온 최장 시간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1988년 US오픈 결승 매즈 빌란더와 이반 랜들의 경기로 4시간54분이 걸렸다. 팬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는 2008년 윌블던 결승 나달과 로저 페더러의 경기는 비로 연기된 시간을 포함하면 7시간이 넘게 이어졌지만 경기 시간만 따질 경우 4시간48분이었다.

2008년 호주오픈에서 생애 첫 그랜드슬램 대회 단식 정상에 올랐던 조코비치는 지난 해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삼금 230만 호주달러(약 27억5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또 지난해 윌블던과 US오픈에 이어 최근 메이저 3개 대회 연속 우승, 개인 통산 메이저 대회 5승째를 거뒀다.

특히 나달을 상대로 지난 시즌부터 7연승을 거두며 '천적'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역대 전적에서는 여전히 16승14패로 나달의 우세다.

조코비치는 30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에서 끝난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 서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을 5시간53분의 대접전 끝에 3-2(5-7, 6-4, 6-2, 6-7, 7-5)로 꺾었다.

5시간53분은 역대 메이저대회 단식 결승에서 나온 최장 시간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1988년 US오픈 결승 매즈 빌란더와 이반 랜들의 경기로 4시간54분이 걸렸다. 팬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는 2008년 윌블던 결승 나달과 로저 페더러의 경기는 비로 연기된 시간을 포함하면 7시간이 넘게 이어졌지만 경기 시간만 따질 경우 4시간48분이었다.

조코비치는 시상식에서 "나달과 나는 오늘 테니스 역사 만들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승자가 둘이 될 수는 없었다"며 나달을 위로했다.

시상식에서 관중을 향해 새벽 2시라는 점에 착안해 "굿 모닝"이라는 아침 인사를 전한 나달은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하용된 1968년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에서 3회 연속 결승전에서 패한 '불운의 사나이'가 됐다. 나달은 지난해 윌블던과 US오픈에 이어 올해 호주오픈에서도 모두 조코비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나달을 상대로 지난 시즌부터 7연승을 거두며 '천적'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역대 전적에서는 여전히 16승14패로 나달의 우세다.

조코비치는 30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연합뉴스

스탠리 “악! 막판 트리플”

파마스 인슈어런스 오픈…18번홀서 ‘풍덩’ 2위 그쳐

카일 스탠리(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마스 인슈어런스오픈에서 골프 역사에 남을 대역전패를 당했다.

스탠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톨리 파인스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한때 2위와 7타 차이를 벌리며 단독 선두로 질주했다.

4라운드 초반에 2타를 더 벌린 스탠리는 17번 홀까지 2위에 4타나 앞서 있었다. 그러나 결국 2위가 된 것은 스탠리였다.

11번과 12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기록한 스탠리는 13번 홀에서 브랜트 스니데커(미

국)가 버디를 잡으면서 스니데커와의 간격이 3타 차로 좁혀졌다.

스니데커는 3라운드까지 스탠리에 무려 7타나 뒤진 6위에 머물고 있었다.

승부의 주를 급격하게 돌려놓은 것은 18번 홀(파5)이었다. 더블보기만 해도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스탠리는 세 번째 샷을 물에 빠트렸고, 결국 1.6m 거리에서 시도한 더블보기 퍼트마저 실패했다.

홀에서 조금 더 멀게 볼을 떨어뜨린 스니데커가 먼저 퍼트를 했다. 스니데커가 친 볼은 그대로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나 심리적 부담이 커진 스탠리의 퍼트는 무심하게도 오른쪽으로 벗나갔다. 스탠리가 다 잡았던 첫 우승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순간이었다.

/연합뉴스

연장 첫 번째 홀인 18번 홀에서 나란히 버디를 기록해 승부를 내지 못한 둘은 16번 홀(파3)로 옮겨 2차 연장전을 벌였다.

티샷을 잘 보낸 쪽은 스탠리였다. 스탠리의 공은 홀과 14.3m 떨어진 그린 위로 올라갔고, 스니데커의 공은 그린을 넘겨 TV 중계팀이 설치된 러프까지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니데커는 드롭을 한 뒤 러프에서 친 두 번째 샷을 홀 1.5m에 붙여 스탠리를 압박했다. 스탠리 역시 긴 거리의 퍼트를 스니데커와 비슷한 거리에 갖다 놓으며 막상막을 이뤘다.

홀에서 조금 더 멀게 볼을 떨어뜨린 스니데커가 먼저 퍼트를 했다. 스니데커가 친 볼은 그대로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나 심리적 부담이 커진 스탠리의 퍼트는 무심하게도 오른쪽으로 벗나갔다. 스탠리가 다 잡았던 첫 우승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순간이었다.

/연합뉴스

“이것이 스노보드”

미국의 손 화이트가 30일 미국 콜로라도주 애스펜에서 열린 X게임대회 스노보드 슈퍼파이프 경기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배상문, 골프협 ‘2011 MVP’

을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배상문(26·캘러웨이)이 대한골프협회 2011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대한골프협회는 30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2011 MVP 시상식을 열고 지난해 프로와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포상했다.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상금왕에 오른 배상문이 2011 MVP로 뽑혔다.

배상문은 작년 말 PGA 투어 월리파인스 툴을 통과해 올 시즌부터 미국 무대에 본격 진출했다.

최우수 프로선수상은 작년 한국프로골프 투어(KGT) 상금왕을 차지한 김경태(26·신한금융그룹)가 받았다. 김경태는 대한골프협회 2010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최우수 아마선수상은 지난해 일송배, 송암배 등 주요 아마추어 대회를 훨씬 김효주(대원외고)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구례, 전남체전 상징물 확정

제51회 구례 전남체전에 사용될 앰블렘, 포스터, 마스코트, 구호, 표어가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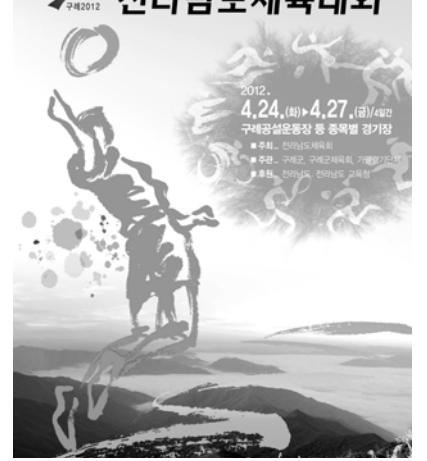
앰블렘은 구례의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배경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을 형상화한 유정현씨(서울시) 작품이 선정됐다.

포스터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배구공에 종목별 선수들의 역동적 경기장면을 담은 이용기씨(서울시) 작품이, 마스코트는 구례군 캐릭터인 '섬진이·예돌이'를 모티브로 해체전 성화를 들고뛰는 모습을 표현한 권지영씨(서울시) 작품이 각각 뽑혔다.

구호는 '함께 가자 청정 구례 함께 뛰자 희망 전남', 표어는 '청정의 땅 구례에서 함께 뛰는 전남체전'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전남체전은 오는 4월 24~27일 구례에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이진경기자 lk5826@

제51회 JeollaNamdo Sports Festival 전라남도체육대회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8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15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15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1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1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5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5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9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9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9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9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9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9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9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9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9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9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9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

2월2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산청·대산(524m) 2월29일(수) 7시40분 배운동 모리터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배운회관후문, 8시20분 동봉주시립국립 *다음카페: 광주 청룡산악회 T.011-946-3450, 010-2683-6666